

UNCSD는 가입국의 환경성과를 평가하고 정부정책 결정에 유용한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체계를 발표하고 PSR 구조에서 사회·경제·제도적인 측면을 고려한 DSR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는 환경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사회·경제·문화적 차원에서의 인간 활동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였다.

유럽환경청에서는 DPSIR구조로 PSR구조를 활용하여 환경상태에 대응하기 위한 인간의 다양한 사회·경제·제도적 행위를 통합적으로 유연하게 규명하고자 제시하였다.

OECD는 2010년 녹색성장전략으로 녹색성장지표를 제시하였다. 제품의 환경적 효율성, 소비의 환경적 효율성,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자연자원, 환경적 삶의 질, 정책 대응 및 수단으로 5개 지표 그룹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2010년 녹색성장 평가를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였다.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고찰하여 기 개발된 녹색성장 관련 분야별 지표와 지수의 구조와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녹색성장 3대 전략 및 10대 정책방향의 평가를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의 녹색성장 이행 수준을 평가하였다.

녹색성장지표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저탄소 경제·사회구조의 정착, 녹색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기후변화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5대 정책방향으로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녹색창조 산업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를 설정하고 각 정책방향의 부합하는 주요지표(22개)와 보조지표(19개)를 제시하였다.